

# 고대 그리스 문화가 무용예술에 미친 영향

안비화(숙명여자대학교 무용과 강사)  
정보영(숙명여자대학교 무용학과 박사과정)

## 논문초록

본 연구는 고대그리스 문화가 무용예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인 시학은 운율을 가진 시 이외에도 역사를 서술한 서사시, 연극, 합창, 음악 등 모든 것을 포괄한 종합예술을 다루었고, 모든 무대공연예술의 형식의 기초를 잡아주었다. 둘째, 무용예술이 만들어내는 공간이 존재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주장하였던 가상의 공간의 잠재성을 실현 하였으며 무용극은 무대 위에서 무용 예술가의 감정 활동에 의한 새로운 가상공간을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현대무용에서 나타난 해체와 단순함은 결국 기하학의 척도를 통하여 고대 그리스 예술에서 보여 지던 우아미의 표현이었다. 셋째, 현대의 무용 예술은 브레히트의 소격효과에 입각하여 화려한 고전주의 예술을 해체하면서 철학적 해석이 추가되어야만 설명이 가능하다. 이제는 무용예술이 작품의 내적 해석을 관객들에게 열어주는 것이다.

주제어 : 고대그리스, 가상, 현대무용, 철학

## I. 서론

무용은 인간의 감정이 담긴 신체움직임의 표현, 그 표현을 뒷받쳐 주는 음악과 무대, 극장 까지 이 모든 항목들이 어우러진 하나의 예술로 만들어 지는 종합예술이다. 사실 과거에는 무용이 타 분야의 예술보다 하위 항목에 속하였다. 고대 그리스에서 무용은 디오니소스 예술인 코레이아(제사, 축제)의 한 부분으로 어떤 원상을 모방하여 유사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부정적 인식을 갖기도 하였으며, (임정미, 2010, p.251) 중세시대에서 무용은 탄압과 함께 금지령이 내려지며, 신도들의 포교행위만을 위하여 추어 지던 신체 행위였다. (김수진, 박순자, 2015, p.9) 발레의 부흥을 일구었던 프랑스 루이 14세 또한 축제와, 정치, 사교를 위하여 무용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과거 기득권층의 목적을 위한 수단의 도구로써 추어졌던 무용은 19세기에 들어서 바그너의 종합예술론에 입각하여 공연이라는 목적을 가지게 된다.

무용이 무대 위에서 스토리를 가지고 그 스토리에 어울리는 음악이 작곡되어 극장에 올려 지며 예술이라는 개념으로 정립된 것은 겨우 200년이 넘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짧은 200년이라는 시간에 무용예술은 고속화로 성장하였다. 특히 무용이 무대화되어 공연으로 보이면서 타 예술과 다른 특수성을 실현하게 된다. 바로 가상이라는 인간의 상상의 공간을 현실 공간에서 실현시켰다는 것이다. 물론 미술과 음악도 창작자의 감정을 내포하여 작업되는 것이나, 미술은 캔버스 안에서 존재하는 가상의 함축이고 음악은 청각을 통하여 인간에게 감흥을 주지만 악보 속에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무용은 극장의 무대 위라는 공간에서 신체의 움직임으로 창작의 목적을 행위로 실현한다. 그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상의 함축인 미술과 내면의 감흥인 음악이 종합적으로 합쳐져 나타나는 진정한 가상 실현 예술인 것이다.

이러한 가상의 실현인 무용예술을 완벽히 이해하려면 가상이라는 개념과 미적 개념이 등장한 고대 그리스 문화의 학문적 이해가 필요하다. 고대 그리스는 서양문화의 언어, 정치, 교육, 의학, 철학, 수학, 과학, 예술 등의 인간 사회 다양한 방면에 기틀을 다져 주었다. 고대 그리스(Ancient Greece)는 그리스의 역사 가운데 기원전 1100년경부터 기원전 146년까지의 시대를 일컫는다. 이러한 고대의 문화는 고대 로마네스크 시대 이전까지의 문화를 일컬으며 고대 그리스는 서구 문명과 서남아시아를 비롯하여 북아프리카 전역에 큰 영향을 주며 풍부한 문화유산을 남긴 것으로(wikipedia, 2017) 평가받으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대 그리스는 인간의 삶에 계속된 영향을 끼친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 철학자로 불리는 플라톤의 철학은 기독교적 사상을 이해할 때도 중요한 인물로 꼽힌다. 기독교 철학 또한 ‘플라톤에서 시작된 이데아의 형이상학적인 가치관이며 그것의 우선성은 후에 영지주의의 이원론을 거쳐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상을 이분법적 구조,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으로’(신경수, 2016, p.221)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 영향은 무용예술에서도 계속되어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고대 그리스 문화가 무용예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현대무용에 철학적 해석과 미래의 무용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이며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주장한 가상이라는 개념의 철학적 이해와 무용을 통한 무대공간에서

의 가상의 실현과 그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둘째, 시학과 기하학으로 제작되는 고전무용과 현대무용에 대한 이해와 그 예를 살펴본다. 셋째, 고대 그리스에서 파생된 철학이 발전하여 어떻게 현대무용예술에 나타나 접목되는지 분석한다. 현재 ‘선교에 있어서 무용의 영역은 미래지향적인 예술신학의 바탕이며 구체적인 선교의 방법임을 알 수 있다’는(유학자 1997:130)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에도 예술의 기틀이 된 고대 그리스 문화를 이해하여 무용을 살펴봄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앞서 다양하게 영향을 끼친 그리스의 예술 및 지식, 사상 개념을 고대 그리스 문화로 통합하여 지칭하였다.

## II. 고대그리스 문화의 학문적 특징이 무용예술에 끼친 영향

우리는 흔히 서양 미학의 핵심은 ‘시학’이라고 말한다. 여기 말하는 시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인 ‘poietiké’를 번역한 저서이다. 시학은 서구 문예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고전 중의 하나이며… 본래 플라톤의 시 폄하에 대한 반론에서 시작하였다.’(조웅순, 2015, p.1) 그의 스승인 철학자 플라톤은 ‘시인 추방론’을 내세우며 예술이란 영감을 통하여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은 천재들이 기발한 착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였다. 즉 비이성적인 사람의 발상이 예술인 것이며 다른 예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에 입각하여 인간의 ‘삶’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시를 제작하는 것은 특정 감정을 발생시키는 목적을 지닌 인지적 가치 행위로 보았다.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작시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짧은 단편시를 짓는 방법이 아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극장 문화는 원형극장에서 시와 연극과 같은 오락물을 낭송하는 것을 즐겼다. 현재 전혀 내려오는 시극의 작시술은 책의 1부로 비극을 작성하는 방법이다. 당시 오락물이 유행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움베르트 에코를 비롯한 후대의 학자들은 희극론이 존재할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중세 시대사적 특징 상 희극이 주장하는 인간의 쾌락과 흥은 인간의 두려움을 없앤다는 이유로 보존되지 못하였다고 보고 있다.

비록 1부가 비극을 이야기하지만 시학에는 운율을 가진 시 이외에도 역사를 서술한 서사시, 연극, 합창, 음악 등 모든 것을 포괄한 종합예술을 다루었고, 이는 현재 공연되는 오페라극, 무용극, 연극과 같은 모든 무대공연예술의 형식의 기초를 잡아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1. 무대공간에서의 가상의 실현

모든 인간은 꿈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그 꿈은 가상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현실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만들어 낸다. 가상이라는 세계는 인간의 지식을 위한 학문으로 풀이되기도 하며, 예술작품과 같이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가상이라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바라본다면 그 자체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면서도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형상이라고 말한다. 절대적 있음과 없음 사이의 중간 영역을 지칭하면서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언젠가 받게 되는 현상을 가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두산백과, 2017)

스콜라 철학에서는 가상의 개념을 잠재된 힘의 상태의 존재를 말한다. 스콜라 철학의 ‘사상적 기원은 존 스코투스 에리우게나에게서 찾는 것이 일반적으로, 신플라톤주의와 위 디오니시우스의 영향을 받았다.’(김희철, 2007, p.8)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인 플라톤의 철학을 바탕으로 신 존재 증명을 이끌어 낸 것이다.’(김희철, 2007, p.13). 이에 따라 과거에는 가상이 현실과 구분되어 나타난 이상의 세계였다.

가상의 대립되는 개념으로는 결국 실재가 아니라 현실인 것이다. 하지만 21세기의 인간은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가상의 공간에서 현실의 내가 아닌 또 다른 ‘나’ 즉 제3공간의 ‘나’ 라는 존재로 사회를 이루어 현실과 다른 가상의 공간에서의 삶을 살기도 한다. 가상 속의 나는 내가 원하는 이상향을 실현시켜줄 수 있다. 이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완벽한 ‘나’를 만들어 인간들끼리 사회화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꿈꾸던 완벽한 가상공간을 어쩌면 현대인들은 실재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기계 속에서 네트워크를 이루며 존재하는 가상의 공간을 실현시키고 있다.

이러한 제3공간의 실현은 사실 낭만주의 이후 무용예술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무용극은 극장이라는 무대 위에서 무용 예술가의 감정 활동에 의한 새로운 가상공간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의한다면 무용예술이 실현한 가상은 사실 이데아 세계에서는 두 단계나 떨어진 그림자일 뿐이다.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통하여 존재하는 것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사물이 시간의 변화를 겪기 때문에 현실세계는 이데아의 모방이며 반영이라고 이야기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용예술이 무대 위에서 만들어 내는 공간이 아무리 상상 속 이야기를 실현한다고 하여도 영감을 얻은 현실 공간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결국 미의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에서는 변화와 변하지 않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무용예술이 만들어 내는 가상공간이 자연 물질적 현실은 아니지만 어떠한 이상을 위하여 무용예술이 만들어 내는 존재 형태의 다른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실 무용예술이 가상공간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대 위의 무용수와 관객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대와 객석이라는 공간의 제약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벤트적인 공간이다.

공연을 관람하면서 관객들은 감흥을 느끼고 상상 속에 빠지는 심리적 확장을 경험하기도 한다. 예로 무대라는 가상공간에서 발레 백조의 호수를 안무한 이바노프는 작품의 신화적인 측면을 무대 위에 올리는 숭고함을 실현하려 하였다면, 메튜본의 백조의 호수는 시각적 아름다움의 개념이 아닌 현실에서는 외면 받고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인간의 본성과 현실에서는 결여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무대 위에서 실현하였다. 무용이 재현하는 가상공간 실현은 인간의 감정 행위에 대한 이상의 미메시스를 행한 것이다.

무용 예술을 통하여 가상공간이 실현되는 무대는 인간이 시각과 청각에 의존하여 접하게 되는 정보이다. 1997년 작품인 호세몽탈보의 파라다이스에서 보여준 과학과 무용의 융합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화제가 되고 있으며 그를 이어 수많은 안무가들이 다양한 융합 작업을 통하여 다양한 가상의 공간을 실현한다. 18세기 바그너의 종합예술론에서 합쳐져 나타나는 고전발레와 같은 무용극에서 가상공간의 실현과 더불어 다양한 융·복합 작업으로 만드는 공상적 가상은 관객이 공연을 보면서 맺는 상호 관계이며 이는 언젠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무대공연은 무대 위에서 잠깐 보이고 내려지면 사라지는 일회성의 시뮬라크르 적이지만 무용예술이 만들어내는 공간이 존재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주장하였던 가상의 공간의 잠재성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기하학이 무용예술에 끼친 영향

종합예술로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무용극의 바탕이 시학에 의하여 기초되었다면 고전무용에 반하여 나타난 현대무용의 바탕에는 기하학이 자리 잡고 있다.

고대 그리스 피타고라스에 의하여 적립되기 시작한 학문인 기하학은 소피스트의 주된 사상이다. ‘피

타고라스학파의 개념으로 미의 본질은 질서(taxis) 척도, 비례, 조화 등이었으며, ... 미를 수에 대한 모방으로 보았다.’(이철재, 2010, p.145) 당시 피타고라스와 그를 따르는 지식인들에게 가장 훌륭히 평가받는 예술은 음악이었는데 음악은 화음이라는 기호를 통하여 수학적으로 완성된 음악이 연주되기 때문에 감각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나 아름다운 음악, 즉 아름다운 화음의 배열은 마음의 감동을 준다고 믿었다.

피타고라스의 기호학적 이론에 입각하여 바라본다면 무용도 기호학적으로 완벽한 배열을 이루어야만 인간의 영혼의 움직임에 이끌려 낼 수 있다. 후기 그리스에 나타난 신플라톤주의를 창시한 플로티노스가 주장한 초월의 빛은 ‘수’를 말하며 수만이 미의 결과라 이야기 하였고, 신플라톤주의의 대표 학자 중 한 명인 프로클로스는 ‘기하학적 도형의 계열은 원에서 시작하며 원은 하나의 선이지만 자기 회귀를 통해 자신을 한정 짓는 선이며, 원을 이루는 곡선은 계속 뻗어나가는 직선과 달리 선이 한정돼 있다는 이유로 곡선은 직선보다 우위에 있어, 한정되어 있는 단일 곡선인 원이 최상의 도형이다.’ 라고 주장한다. (“기호학으로,” 2013)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이론은 20세기 이후 무용이 인간 신체 본연으로 돌아간다는 취지에서 발생한 현대무용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18세기 미학자 요한 빈켈만은 고대 그리스 예술에서 미를 ‘이성적으로 처리한 정확성과 감성이 산출하는 무의식적인 우연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기정희, 2003, p.224)으며 이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할 때에도 전체의 비례와 균형과 질서를 고려하기 때문에 대단히 단순하고 고요한 표현이지만 그 안에서 비극적 상황까지 묘사될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예술을 이해하는데 비례와 균형을 통한 단순함은 필수 요소인데 이는 현대무용사의 선구자라 꼽히는 이사 도라 던컨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녀는 고대 그리스 영향을 받아 인간주의적 무용을 시작하였다고 말한다. 그녀는 “내 무용의 원천을 이루는 세 가지는 그리스 예술, 우아한 고전음악 그리고 니체의 철학 사상입니다.” (“삶의 트랙에서, 춤추는,” 2016)라 말한다.

그녀는 박물관에 전시된 그리스 예술작품에 매료되어 그림과 도자기 속 조각의 고대 그리스 신 바코스의 무녀(巫女)와 인간들의 형상을 따라 하였다. 고대 그리스풍의 하늘하늘한 옷자락을 입고 댄발로 춤을 추며 그녀는 ‘사람을 춤추게 하는 것은 영혼과 정신이지 기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녀 이전에 행해지던 발레의 정형화를 벗어나 무용에서 나타나는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인 것을 주장하며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신체 움직임을 행하려 했다(“역사속의, 이사도라,” 2010). 사실 그녀의 춤은 피타고라스가 평가한다면 예술이 아닐 것이다. 자유로움을 추구하던 그녀이기에 그녀의 바탕은 그리스풍일지라도 완벽한 배열을 이룬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춤은 결국 단순함에서 나타난 신체의 움직임이며 그 안에서 균형과 비례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기하학의 이론 속에서 고요하지만 위대한 외침인 것이다.

그녀를 이어 21세기 무용계에서는 미니멀리즘의 선구자인 안나 테레사(Anne Teresa de Keersmaecker)도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적 영향이 미친 현대무용예술을 추기 시작한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예술 분야에서 출현한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이 그녀의 무용단을 시작으로 무용예술에도 등장하는 것이다. 무용 동작이 단순해지고 간결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단순하지만 완벽한 도형의 배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는 로사스무용단의 대표작 중 하나인 ‘Violin Phase’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의상부터 하얀 원피스 하나가 끝이다. 마치 이사도라 던컨의 그리스풍의 하늘하늘한 의상이 떠오른다. 안무와 구성을 보자. 모래

위에서 반복되는 스텝, 제스처에 가까운 안무 동작과 그 움직임으로 모래 바닥에 그리는 도형은 마치 아름다운 꽃의 형상을 선사한다. 그녀는 무용으로 이루는 기하학적 척도와 비례의 도형과 절제된 제스처를 반복하여 나열한다.

우리는 그녀의 춤을 무용의 미니멀리즘이라고 하지만 피타고라스학파를 지향하는 지식인들이 그녀를 보았다면 인간의 감각을 절제하여 철저하게 기하학에서 제작되어 구체화된 비례이며, 이를 통하여 영혼의 내적 움직임을 몸으로 재현한 가시화된 작업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미니멀리즘과 기하학, 그건 바로 ‘수학적 단순화 작업’이라는 말로 공통점이 성사된다. 현대무용이 등장하여 주장한 인간 신체 기본의 움직임은 결국 기하학을 통한 제작적 비례와 균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 쉽게 말하면 예술을 만드는 과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이다. 기하학에 있어 점, 선, 면, 도형, 공간에서 나타나는 수직 비례를 통하여 그녀는 예술에 간결하면서도 안정감, 그리고 아름다움을 표현하였고 이는 동작의 미니멀리즘이란 현실의 인간 신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움직임을 재현하였다. 동작과 구도는 기하학을 통하여 단순화되어 영혼의 움직임인 감정 활동을 던컨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룬 것이다. 그녀의 다른 작품인 <로사스댄스 로사스(Rosas danst Rosas)>에서도 총 5개의 섹션이 리듬과 숨소리를 배경하여 격렬하면서도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의자 춤에서 보이는 반복은 반복을 통해 순간순간의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 짐을 이야기한다. 무용만이 간직한 일회성과 무용이 시공간의 예술이라는 특수성을 통하여 순간순간마다의 스토리텔링을 완성해 준다. 반복이라는 섹션과 리듬으로 철저히 제작된 안무는 반복을 통한 수직 비례로 간결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무용예술로 나타난다. 그녀 이후 현대무용계의 미니멀리즘은 계속되어 나타났다.

고대 피타고라스 이론에서 말하는 음악에서 느끼는 화음의 배열이 주는 감동은 현대무용예술에서 나타난 단순하지만 기호학적으로 완벽한 배열과 균형을 통하여 결국 인간의 영혼의 움직임을 이끌어 낸다. 뉴욕타임스의 첫 무용 비평가였던 존 마틴은 이러한 무용의 단순화 작업을 평하며 ‘다른 예술 분야에서는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단순화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하였다.(데니얼 J. 부어스틴, n.d/ 2002, p.452) 현대무용에서 나타난 해체와 단순함은 결국 기하학이라는 비례와 척도를 통하여 고대 그리스 예술에서 보여 지던 인간 중심의 우아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 III. 현대무용예술에서 나타나는 철학적 해석

고전예술은 구성과 형성, 숭고와 우아 이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예술이라는 작품의 구성과 형성에 있어 신이 중심이 되었던 고대 이집트와 중세시대의 미적 개념으로는 정면성의 원리로 합리주의를 주장하며 숭고미로 해석이 가능하였고,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시대는 단축법에 의하여 인간 시각에 따라 의식적으로 추구하면서 인간 중심의 우아미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현대의 예술은 형태를 부정하면서 추상이 나오고, 15세기의 엄청난 발견이었던 원근법이 사라지면서 큐비즘이 나타났다. 그리고 화려하고 조화로운 색감이 해체되면서 표현주의가 나타났다. 현대의 예술은 브레히트의 소격효과에 입각하여 화려한 고전주의 예술을 해체하고 부정하면서 예술을 이야기하며 구성과 형성, 그리고 철학이 추가되어야만 설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예술이란 미학을 기초로 한다. 현대예술은 고전을 부정하여 나타나는 형상들을 미학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름답지 못한 작품들이 왜 미학적이며 예술적인가에 대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주체들을 이해시켜야만 했다. 무용예술도 마찬가지였다. 이사도라덩컨이 대영

박물관에서 맨발로 춤을 추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상자가 아닌 예술행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녀를 보는 주체들에게 그녀를 예술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설명이 필요했다. 또한 고전발레의 기본인 턴아웃을 완전히 무시하고 부드럽고 우아한 곡선의 발레를 뻗뻗하고 각이 진 동작으로 변형해버린 마사그레이엄의 작품을 피카소의 ‘아비뇰의 처녀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현대무용을 대중들에게 설명을 해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식인의 평가가 필요했고 이는 뉴욕타임스에 무용 비평가를 임명하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 어쩌면 현대의 무용예술은 형상의 빈곤과 그럴듯한 해석으로 이루어진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 이는 무용예술만이 아닌 모든 예술에 통용될지도 모른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에 맞추어 중세 고성을 옮겨놓은 듯 무대 세트 위에서 화려한 의상을 입고 우아한 몸동작을 뽐내던 무용이 이제는 겨우 음악에 맞추어 리듬 맞추기에 불과하며 고작 천 쪼가리 하나 걸친 무용수들이 신체 본연의 움직임이라는 단순한 제스처를 무용이라고 주장하여 눈과 귀로 즐기던 무용예술이 이제 눈과 귀로 읽어 내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해설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추어지는 무용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제는 무용예술도 보여짐에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 아닌 작품의 내적 해석을 관객들에게 바라는 것이다. 내적으로 즉 철학적 미학을 통하여 작품의 완성을 동작의 안무가 아닌 해석으로 종결시킨다. 해설이 주장한 변증법의 이론과 같이 안무가의 이상을 표현한 작품을 해설가가 철학적으로 이해시켜 현실의 예술로 만들어 주고, 다시 이 예술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면 그걸 다시 누군가 해석하여 완성시켜주는 순간적인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이 현재의 무용예술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결국 현대 무용은 지식이 발전되어 나타난 인간 움직임에 정신이 실현되는 순간적인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화이트헤드가 주장한 것처럼 플라톤 이후의 모든 철학이 플라톤 철학에 대한 각주라고 말하는’(김은중, 2000, p.49)것은 무용예술도 철학적 각주의 일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이후 20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인간의 지식은 계속 발전되어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하지만 무용예술에서 다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회귀함이 나타나는 것 같이 우리가 고대그리스 문화를 계속 되새기게 되는 것은 그 시대의 지식들이 결국은 인간 본연을 위한 지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 IV. 결론

4차 산업 혁명에 시대에 이르면서 무용 예술 또한 그 영향에 걸맞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로봇이 인간대신 무대에서 춤을 추고, 인간이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품을 구성하여 안무한다. 인간 삶의 다양한 방면에 편리한 기술들이 발명된 것처럼 무용예술에서도 과학기술이 접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 편리함속에서 인간이 무용예술을 통하여 실현하였던 가상공간을 통한 이상의 실재화라는 그 본질은 계속 남아서 유지된다.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간편하게 작업을 마무리하여도 안무가와 창작가의 내면의 표현을 밖으로 이끌어 낸다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내면의 인식은 철학으로 이루어지며 철학은 2000년 전의 고대그리스 문화로 이어진다. 이는 계속되는 인간의 발전과 변화 속에서도 그 기준을 잡고 있는 고대 그리스 문화를 이해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고대 그리스 문화가 무용예술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한다.

첫째,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인 ‘시학’에서는 목적론에 입각하여 인간의 ‘삶’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를 제작하는 것이 특정 감정을 발생시키는 목적을 지닌 인지적 가치 행위로 보았다. 시학에는 운율을 가진 시 이외에도 역사를 서술한 서사시, 연극, 합창, 음악 등 모든 것을 포괄한

종합예술을 다루었고, 현재 공연되는 오페라극, 무용극, 연극과 같은 모든 무대공연예술의 형식의 기초를 잡아주었으며 종합예술로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무용극의 바탕이 되었다. 고전무용에 반하여 나타난 현대무용의 바탕에는 기하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스콜라 철학에서는 가상의 개념을 잠재된 힘의 상태의 존재를 말하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꿈꾸던 완벽한 가상공간의 실현은 낭만주의 이후 무용예술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무용극은 극장이라는 무대 위에서 무용 예술가의 감정 활동에 의한 새로운 가상공간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무용예술이 만들어 내는 가상공간이 자연 물질적 현실은 아니지만 어떠한 이상을 위하여 무용예술이 만들어 내는 존재 형태의 다른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다. 무용예술이 만들어내는 공간이 존재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주장하였던 가상의 공간의 잠재성을 실현하는 가상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대 피타고라스 이론에서 말하는 음악에서 느끼는 화음의 배열이 주는 감동이 현대무용예술에서 나타난 단순하지만 기호학적으로 완벽한 배열과 균형을 통하여 결국 인간의 영혼의 움직임을 이끌어 낸다. 현대무용에서 나타난 해체와 단순함은 결국 기하학이라는 비례와 척도를 통하여 고대 그리스 예술에서 보여 지던 인간 중심의 우아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셋째, 고전예술은 구성과 형성, 숭고와 우아 이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면 현대의 예술은 브레히트의 소격효과에 입각하여 화려한 고전주의 예술을 해체하고 부정하면서 예술을 이야기한다. 무용예술도 보여 짐에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 아닌 작품의 내적 해석을 관객들에게 바라는 것이다. 과거의 예술은 눈과 귀로 읽어 내는 것이었다면 현대의 예술은 누군가의 해설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구성과 형성, 그리고 철학이 추가되어야만 현대의 예술에 대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무용예술에서 다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회귀함이 나타나는 것 같이 우리가 고대그리스 문화를 계속 되새기게 되는 것으로 고대 그리스 문화와 그 시대의 지식들이 결국은 인간 본연을 위한 지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의한다면 예술의 실현은 이데아 세계에서 두 단계나 떨어진 그림자이며 이데아를 모방한 것 뿐 이었다. 기호학의 아버지 피타고라스도 예술을 수에 대한 모방으로 보았다.

하지만 20세기 사진과 DVD라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인간 삶에 완벽한 모방이 나타났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미메시스도 완벽하게 베끼는 모방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던 미메시스는 창조활동이 주는 인지적 가치였기에 현대 과학기술로 완성된 모방은 미메시스의 부분집합일 뿐이다. 이처럼 우리는 철학이라는 ‘앎’을 통하여 미학적 절대정신인 진리를 계속 실현하려 할 것이며 이로 무용예술이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 신체 움직임의 진리 또한 계속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기정희 (2003). 그리스 미술에 대한 빈켈만의 역사인식. 미술사학보, (19), 207-229.  
 [Ki. J. H.(2003) Winckelmann's Historical Understanding of Ancient Greek Art: *Korean Bulletin of Art History*. (19), 207-229. ]
- 김수진, 박순자 (2015). 중세 시대의 무용현상을 통한 무용의 발전방향 모색. 기독교 학문 연구회, (20), 7-38,  
 [Kim, S. J. Park, S, J.(2015) An Exploration on Development Direction of Dance through Dance Phenomena in the Middle Ages :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Studies*(20),7-38, ]
- 김은중 (2000). 플라톤의 형상 - 개별자 이론과 화이트헤드의 현실적 존재 - 영원적 객체 이론. 한국화이트헤드학회, (3), 31-52 .  
 [Kim. E. J.(2000) Theories of Plato's eidos - Individual Things and Whitehead's Eternal Object - Actual Entity: *the whitehead society of korea*. (3), 31-52 . ]
- 신경수 (2016). 기독교 전통에 나타난 교회와 세속의 이원론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비판: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35), 219-249.  
 [Shin. K. S.(2016 Christian ethical Critique on Dualism of Church and Secular World in Christian Tradition: Focusing on the Influence on Plato's Dualism : *Korean Christian Social Ethics Society*. (35), 219-249.)
- 이철재 (2010). 미의 기준과 공간 특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사적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9(6), 141-149.  
 [Lee, C. J. (2010) A Historical Research on Correlation between the Standard of Beauty and Spatial Characteristics - Focusing on Greek·Rome and Renaissance :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journal*. 19(6), 141-149.
- 임정미 (2010). 서양 고대 그리스의 모방론에서 본 춤 예술. 한국체육철학회지18, (4). 247-259.  
 [Lim. J. M.(2010) Dance and Art in Greek Mimetic Theory: *Philosophy of Movement*. 19(6), 141-149.]
- 유학자 (1997). 무용이 한국 기독교 선교에 미치는 영향. 韓國舞踊教育學會. (7)0, 109-136.  
 [You. H. J (1997) A Study on the Effect of Dance on Christion Missionary work in Korea : *The Korean Dance Education Society* (7)0, 109-136. ]
- 조웅순 (2015). 논문(論文) : 아리스토텔레스의 『詩學(시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구사학회, 119(0), 393-430.  
 [CHO. E. S()2015 A Critical Essay on Aristotle's Poetics : *The .daegu history Education*.119(0), 393-430.]
- 김희철 (2007). 스킴라 철학과 중세 고딕 건축 이미지와의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이민아, 장석봉 역 (2002) **창조자들.1 - 3**, Boorstin, Daniel J.(n/d) . 서울: 민음사.

위키백과 “검색어: 고대그리스” (검색일 2017.10.12.)

<[https://ko.wikipedia.org/wiki/%EA%B3%A0%EB%8C%80\\_%EA%B7%B8%EB%A6%AC%EC%8A%A4](https://ko.wikipedia.org/wiki/%EA%B3%A0%EB%8C%80_%EA%B7%B8%EB%A6%AC%EC%8A%A4) (2017.10.12.) >

두산백과 “검색어: 가상” (검색일 2017.10.12.)

<[http://www.doopedia.co.kr/search/encyber/new\\_totalSearch.jsp](http://www.doopedia.co.kr/search/encyber/new_totalSearch.jsp) (2017.10.12.) >

신동아 2014. 4, “기호학으로 드러낸 기독교 황제의 절대적 神觀.”

<http://shindonga.donga.com/3/all/13/111948/2>, (2017. 9. 18)

중앙일보 2014, 01, 16. “[삶의 뜨락에서] 춤추는 몸“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143908](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143908) (2017. 9. 18)

매일신문 2010. 05. 27. “[역사 속의 인물] ‘맨발의 댄서’ 이사도라 던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163147>  
(2017. 9. 20)